

‘탐나는전’ 재판매 차단 시능 뿐

중고거래앱 ‘모니터링 강화’ 약속 후에도 불법거래 빈번
도 “판매금지 품목 요청… 정부엔 처벌 규정 신설” 건의

제주형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재판매를 막기 위한 온라인 중고 거래시장의 자정 노력과 제주도의 감시가 시능에 그치고 있다. 탐나는전 재판매 차단을 위해 그동안 어떤 조치가 이뤄졌는지, 실효성은 있는지 등을 짚었다.

▶**감시 강화 약속**-제주도는 지난해 12월29일 국내 최대 중고 거래앱인 당근마켓에 “탐나는전이 거래되지 않도록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제주도는 탐나는전 불법 거래 실태에 대한 한리일보의 취재(2020년 12월30일자 1면 보도)가 시작되자 이같이 조치했다. 월 평균 방문자수가 1200여만명에 달하는 당근마켓에서는 탐나는전 출시 3주 만에, 이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되파는 재판매 시도가 4건 있었다. 이중 3건은 거래가 이뤄졌다.

지역화폐 재판매는 공적자금 투입 목적을 훼손하고 유통 질서를 어지럽혀 법으로 금지돼 있다. 재판매가 허용되면 탐나는전 1만원권을 9000원에 산 소비자가 탐나는전을 쓰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가 10% 할인 혜택이 폐지된 후 누군가에게 권면금액보다 5% 싼 가격에 되파는 방법으

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세금을 투입해 발행한 지역화폐가 목적과 달리 개인 이익 추구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이다.

당근마켓 측은 제주도의 개선 요청을 받은 당일 “탐나는전 재판매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회신했다. 제주도 또한 모니터링 강화를 약속했다.

▶**근본 대책 없는 언발에 오줌 누기**-그러나 당근마켓에서는 최근에도 탐나는전이 거래됐다. 취재결과 지난해 12월29일 이후 이달 18일까지 3주간 당근마켓에 올라온 탐나는전 재판매 글은 5건으로, 이중 3건이 거래됐다. 양측 모두 감시 강화만 약속했을 뿐 근본대책 마련에 소홀한 한 결과다.

탐나는전 온라인 재판매 시도를 사전 차단하는 방법으로는 ‘판매금지 품목’에 지역화폐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다. 현재 당근마켓 측은 담배, 음식물 등 십수가지의 판매금지 품목으로 정해 해당 품목에 대한 거래를 미리 방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 이용자가 ‘담배를 판

다’고 글을 올리면 당근마켓 측은 즉시 ‘국내법상 해당 품목은 온라인 상에서 거래할 수 없으니 삭제해달라’고 경고 메시지를 발송하는 한편, 다른 이용자가 해당 판매글을 볼 수 없게 조치한다. 반면 탐나는전은 판매금지 품목이 아니다보니 누구나 쉽게 이곳에다 거래글을 올릴 수 있다.

제주도의 감시도 허술했다. 제주도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는 당근마켓 측의 말만 믿고서, 그 이후에도 재판매가 이뤄지는지를 파악하지 않았다. 제주도는 ‘감시 인력이 부족했다’고 토로했지만, 당근마켓 앱에 나온 관심 키워드에 탐나는전을 등록하면 재판매 시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해명은 궁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적 한계는 탐나는전 재판매를 부추기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에는 재판매 금지 규정만 있을뿐, 이를 어겼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없다.

도 관계자는 “재판매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당근마켓 측은 탐나는전을 판매금지 품목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李·朴 전 대통령 사면 “지금 말할 때 아니다”

문 대통령 어제 신년기자회견
4차 재난지원금은 “아직 일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지금 코로나 3차 유행이 마지막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 나가면 훨씬 진정시킨 상황 속에서 치료제와 백신을 사용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국민들께서 조금만 더 힘을 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방역과 정치·경제·외교·안보 분야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이 말했다. >> 관련기사 2면

문 대통령은 연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대통령께 건의 하겠다고 밝히면서 관심사로 떠오른 사면에 대해 “선고가 끝나자마자 돌아서서 사면을 말하는 것은 비록 사

면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말할 권리는 없다”며 “지금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언젠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마도 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올 것”이라면서 “그에 대해서도 대전제는 국민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해 남은 임기에도 논의에 신중을 기할 것임을 피력했다.

일각에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은 논의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중이고,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부득이 또 추경으로 하게 되고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데, 2021년도 분예산도 이제 막 집행이 시작된 이 단계에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또 코로나19 백신 접

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 해소를 위해 ‘우선 접종’ 할 의사가 있다고도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을 비롯한 공무원들은,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제외하고는 굳이 우선순위가 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만약에 정말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아주 높아져서 백신을 기피하는 상황이 돼 출산수범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면 저는 그것도 피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에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게 된다는 점까지 믿어달라”며 안심하고 백신 접종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올해 기자회견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현장에는 기자 20명만 참석하고, 기자 100여 명이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와대·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장마에 AI·한파까지 밥상물가 ‘비상’

쌀·양파 등 가격 상승… 달걀·닭고기 값도 급등

지난해 장기간 이어진 장마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그리고 겨울 한파 등 연이은 악재로 인해 밥상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이날 기준 쌀(상품) 20kg의 도매가격은 5만6580원으로 전년 동기(4만7100원) 대비 20.1% 상승했다.

쌀 도매가격은 지난해 8월 말 기준 4만9040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여왔으나, 지난해 여름 최장기 장마와 잇따른 태풍으로 인한 작

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채소와 과일류 가격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이날 기준 양파(상품) 20kg의 도매가격은 3만8560원으로 전년 동기(1만9000원)보다 102.9%나 급등했다. 파의 경우 전년보다 150.0%나 올랐으며, 간마늘과 시금치는 각각 72.1%, 62.1% 상승했다.

또한 사과(상품) 10kg 도매가격은 6만2700원으로 전년 동기(3만9500원)보다 58.7% 상승했으며, 배(상품)

15kg의 도매가격도 7만5260원으로 전년(4만2450원)보다 77.3% 올랐다.

축산물의 경우 코로나19와 AI 확산 여파로 인해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13일 기준으로 한우와 돼지고기 산지 가격은 전년보다 각각 7.77%, 8.62% 상승했다. 특히 닭고기 1kg의 산지 가격은 1900원으로 전년 동기(1118원) 대비 69.87% 올랐으며, 계란 10개 산지 가격도 전년 동기(1104원) 대비 35.55% 상승한 1497원을 기록했다.

김현식기자

희귀난치성환자 도외병원 항공료 등 지원

제주시는 올해도 취약계층이 도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때 부담 경감을 위해 항공료 등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산정특례자

로 등록된 희귀난치성고 중증질환자들이 도외병원 진료시 항공료와 선박비 등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확보 예산은 9000만원으로, 1인당 최대 12회까지 지원되며 18세 미만 질환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KTX나 열차비 등 현직교통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이나 입·퇴원 날짜를 기준으로 전후 일주일 이내 탐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갖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문미숙기자 ms@ihalla.com

謹 賀 新 年

소기업·소상공인에게 「성장과 희망」을 제공하는 제주경제의 종합금융리더

현재 시행중인

제주신용보증재단 보증상품 안내

상품명	보증대상	보증규모	보증한도	보증료	대출금리
골목상권 헤드림 특별보증	골목상권에서 도소매업, 음식점, 서비스업 등을 영위중인 소기업·소상공인	300억원	30백만원 이내	0.7% 고정	1.4% 이내
창업두드림(Do Dream) 특별보증	창업 후 3년 이내의 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	300억원	50백만원 이내	0.7% 고정	1.4% 이내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창업지원 특별보증	창업 후 3년 이내의 도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소기업·소상공인	200억원	50백만원 이내	0.7% 고정 (제주은행 보증료 대납)	1.4% 이내
교육 서비스 소상공인 금융지원 협약보증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학원 등 교육서비스업을 영위하고 대표자의 개인신용평점이 355점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	450억원	100백만원 이내	0.5% 고정	2.0% 내외

제주신용보증재단 JejuCreditGuaranteeFoundation

· 본 점: 제주시 연북로 33, KT&G 제주본부 4층 TEL : 064)750-4800

· 동제주지점: 제주시 건주로 45, 제주축협 4층 TEL : 064)758-8020

· 서귀포지점: 서귀포시 신중로 50, KT신서귀포빌딩 1층 TEL : 064)733-8133